

# 박선호 차관, '건설산업의 선제적인 그린뉴딜 대응' 강조

## -10일 건설산업계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서 선제적 노력 가속화 당부

-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10일(금) 상공회의소에서 '건설산업 그린뉴딜 대응 세미나'를 개최하여 그린뉴딜의 가치와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건설업계의 선제적인 준비를 당부했다.
  - 이번 세미나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'그린뉴딜'을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할 설계사와 시공사 등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토연구원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건설산업연구원,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공동 개최했다.
-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"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공조·환기 시스템 개선, 태양광·풍력·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기반 구축, 비대면 재택근무 확산에 부응하는 사무와 주거공간 개선은 그린뉴딜의 핵심 과제"라고 강조하며,
  - 이를 위해 "프로젝트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지속가능한 인프라 모델을 정립하고 현장에서 친환경 자재와 저공해 장비의 활용을 확대"하는 한편, "건설업계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전략을 재편"하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당부했다.
- 한편, 이번 세미나는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존 번(John Byrne) 석좌교수의 영상발제를 시작으로
  - 한미글로벌, 현대건설 등 업계의 대응현황 및 계획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건설산업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.
-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국토연구원 등 주관기관의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.

2020. 7. 10.

국토교통부 대변인